

6월 2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17절 (6월 4일 본문)
- **포인트:**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 1. 찬양

(새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2. 기도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게 해 주세요.

≡ 3. 말씀

베드로전서 2:13~17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 못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말성경>

13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14 또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순복하십시오. 15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6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17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 본문 이해

그리스도인은 나라의 모든 제도를 따르고 통치자와 지도자를 존중해야 해요. 그들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사회 질서가 잘 세워지면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베드로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주후 64년경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가 권세를 가진 왕과 왕이 보낸 총독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제도에 순복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네로 황제와 로마 제국을 향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고 권하는 것은 그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회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워진 국가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며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어요(롬 13:1). 그리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징벌한다고 말해요(롬 13:4). 이러한 태도는 당시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며 고소를 일삼던 이방인의 악행에 대비하는 행동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 고소당할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15절)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주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17절).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질서 유지와 성도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국가의 제도와 왕을 비롯한 권세자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 4. 나눔

1) 베드로는 국가의 제도, 왕과 왕이 보낸 총독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3~15절)

■ 저학년

베드로가 나라의 제도를 잘 지키고 왕과 총독을 존중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요?(13~15절)

■ 유아·유치

베드로는 왜 나라의 규칙을 잘 지키고, 왕과 왕이 보낸 총독의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 했나요?(13~15절)

□ 질문 가이드

국가 제도를 잘 지키고 왕과 왕이 보낸 총독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단순히 사회에 적응하고 법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행동임을 알려 주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베드로가 처했던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대적자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는 법과 제도를 잘 지키고 왕과 총독을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종’(16절)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2) 우리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각자 하나씩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 **저학년**

우리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 **유아·유치**

우리나라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 **질문 가이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평화가 왜 중요한지 나누어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로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유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바르게 분별하고 행동하도록 기도해야 해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이에요.

≡ **5. 감사하기**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큰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세워 주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희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도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